

광주베스트일레븐, 전국 유소년 '최강팀' 입증

김천포도배 축구 4학년부 우승 결승서 부산연산SC 2-1 제압 3학년부 3위...6월 국제대회도

광주베스트일레븐이 전국 유소년 최강팀으로 등극했다.

광주베스트일레븐은 지난 25~26일 이틀간 김천시 일원에서 열린 2023 1차 KYFA컵 김천 제3회 김천포도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에서 4학년부 우승, 3학년부 3위를 차지했다. 특히 전국의 42개 팀이 참여한 리그에서 우승한 4학년부는 베트남 호치민 동계훈련(7박 9일) 지원이라는 특전까지 안았다.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참가한 팀으로 우승을 일궈냈고, 무엇보다 특별한 전용구장 없이 임대한 구장에서 훈련해온 끝에 얻어낸 결실이어서 더 의미가 크다.

출전 선수는 안태인, 유보현, 송윤빈, 김유준, 차우진(이상 4년), 안태양, 나은성, 변승재, 박도진, 김도윤, 김동균, 김을문(이상 3년), 서지우, 채영호, 이건, 김태린, 김동찬, 문하람, 하민욱(이상 2년)이다.

한국유소년축구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초등학교 2~6학년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고학년부 4~6학년은 8인제로 전·후반 각 20분, 저학년부 2~3학년은 6인제로 전·후반 각 15분씩 경기를 치렀다. 조별 예선리그, 본선 토너먼트를 거치면서 유소년 최강팀을 가렸다.

광주베스트일레븐은 백호리고 4학년1그룹에서 정상에 올랐다.

대회 첫날 예선 2경기를 치른 광주베스트일레븐은 둘째날 4경기를 소화하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평소 훈련해온 경기력을 선보이며 전국의 강호들을 모두 제쳤다.

김천상무축구단을 3-0으로 이긴 것을 시작으로 안동스포츠클럽을 2-0으로 제압하며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이 고비였으나 승리를 가져오기는 충분했다. 서울SNFC를 만난 광주베스트일레븐은 2-1로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그리고 마지막 결승에서 부산연산SC를 2-1로 제압하며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광주베스트일레븐은 4학년 경기에 나서면서도 3학년 선수 4명이 포함된 전력으로 이번 대회를 치렀고, 이로 인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본기와 경기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베스트일레븐은 주 3~4회 1시간30분에서 2시간여 훈련을 하고 있으며 소속 선수들은 엘리트 선수를 향해 과정을 밟는 중이다.



광주베스트일레븐이 지난 25~26일 이틀간 김천시 일원에서 열린 2023 1차 KYFA컵 김천 제3회 김천포도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에서 백호리고 4학년부 1그룹 우승을 차지하며 베트남 동계훈련비를 지원받았다. /광주베스트일레븐 제공

조성진 광주베스트일레븐 단장은 “이번 대회에 전국에서 114개 팀이 참가했는데 베스트일레븐이 광주에서는 유일했다. 그런데 우승까지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면서 “올해 첫 대회에서 우승을 해 전국에 광주 축구위상을 높인 것 같

아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저학년 시기에는 선수들의 기본기를 키워줘야 한다. 드리블 위주로 개인적인 능력 발전에 교육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기는 지는 대회 참가를 통해서 경기력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우승을

함으로써 선수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베스트일레븐은 다음 달 유소년축구 연맹 주최 최음대회에 참가한 뒤 6월에는 일본 국제유소년대회에 초청을 받아 출전할 예정이다. /최진화 기자

클린스만호 오늘 밤 우루과이와 격돌

카타르월드컵 이후 4개월만

백승호 햄스트링 부상 제외

축구 국가대표팀이 있던 '부상 악재' 속에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 체제 두 번째 경기인 우루과이와의 평가전에 대비한 담금질을 마쳤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27일 파주 NFC에서 우루과이와의 경기에 대비한 마지막 훈련을 소화했다.

대표팀은 28일 오후 8시부터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루과이와 평가전에 나선다.

24일 울산에서 열린 콜롬비아와의 평가전(2-2 무승부)에 이어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 하는 두 번째 A매치다.

지난해 11월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맞붙어 0-0으로 비긴 우루과이와 4개월 만의 재회이기도 하다.

콜롬비아전 이후 외박으로 휴식을 취한 뒤 26일 오후 파주 NFC로 돌아와 훈련을 재개한 대표팀은 이날도 오후 시간대에 훈련을 진행했다.

30분가량 실내 운동을 먼저 한 뒤 그라운드에 나와 초반 15분가량만 미디어에 공개한 가운데 막바지 담금질에 박차를 가했다.

미디어에 공개된 훈련 시간에 선수들은 조깅으로 몸을 풀고, 5~6명이 한 조를 이뤄

볼 돌리기를 하거나 짝을 지어 짧은 패스와 트래핑 연습 등을 진행했다. 끝머들은 안드레아스 코프케 코치와 별도로 훈련했다.

이날 훈련엔 이번 소집 멤버 25명 중 주축 손흥민(토트넘), 김민재(나폴리), 콜롬비아와의 경기 때 허리를 다쳐 소집 해제된 풀백 김진수(전북)를 대신해 발탁돼 전남 합류한 설영우(울산)를 비롯한 24명이 참여했다.

미드필더 백승호(전북)가 부상으로 빠졌다.

대표팀 관계자는 “백승호가 오른쪽 햄스트링에 불편감을 느껴 오늘 오전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았고, 아주 미세한 손상이 보여서 오늘 훈련에선 제외된 채 치료받고 있다”며 “소집 해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카타르 월드컵 16강 멤버로 브라질과의 16강전(1-4패)에서 만회 골을 넣었던 백승호는 '1기 클린스만호'에도 발탁됐으나 콜롬비아전에는 교체 명단에 포함됐고 경기에서 나서진 못했다. 26일엔 동료들과 함께 팀 훈련에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시즌 대한축구협회(FA)컵 우승팀이자 K리그 2위 팀인 전북은 주전 풀백 김진수가 허리뼈 2번 좌측 횡돌기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데 이어 중원 사령관 백승호마저 다치며 이번 소집에서 연이어 전력에 타격을 입었다. /연합뉴스



우루과이와 평가전을 하루 앞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손흥민이 27일 파주 NFC에서 팀동료들과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청 국제·전국대회 메달 행진

펜싱 유단우 난징월드컵 '은'

우유 김민수 국제선발전 1위

스쿼시 양연수 회장배 우승

전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가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에서 메달 행진을 펼쳤다.

전남도청 펜싱팀 유단우(27)는 26일(현지시간) 2023 중국난징월드컵대회에 최인정(계룡시청), 송세라(부산시청), 이혜인(강원도청)과 함께 여자 에페 대표팀으로 출전, 은메달을 획득했다. 16강전에서 루마니아에 40-31 승, 8강에서 홍콩에 44-35 승, 4강에서 폴란드를 만나 부전승을 하며

결승에 진출했고 마지막 경기에서 프랑스에 35-45로 패하면서 준우승을 기록했다.

전남도청 우유팀 김민수(25)는 24~27일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35회 회장배 전국우유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 선발전 산타-60kg급에서 우승했다. 8강에서 신희성(충남체육회)에 2-0으로 승리하며 준결승에 진출한 김민수는 배진범(서울시실업단)을 2-1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 조성현(경남체육회)이 부상기권을 하면서 최종 우승을 차지, 생애 첫 태극마크를 차지했다.

김민수 외에도 장민규(29)가 태극권전능에서 19.37점, 김영준(28)이 남권전능 27.34점을 획득하며 각각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진화 기자



유단우

전남도청 스쿼시 양연수(32)는 지난 23~26일 김천스쿼시장에서 열린 제19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스쿼시선수권대회 여자 일반부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다.

16강에서 최우라(경남체육회)에 3-1로 승리한 뒤 8강에서 류보람(울산시체육회)을 3-0으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현 국가대표이자 작년 챔피언인 엄화영(인천시체육회)에게 연달아 2세트를 내줬으나 집중력을 발휘해 리버스 스윙으로 3-2 역전승을 거두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는 김기혜(광주시체육회)를 3-0으로 꺾었다. /최진화 기자

전남 드래곤즈, FC목포와 FA컵 격돌

내일 광양축구전용구장

전남 드래곤즈가 29일 오후 7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2023 하나원큐 FA컵을 시작한다.

2라운드에서 시작하는 전남의 첫 상대는 FC목포다. K리그3에서 활약하는 강팀으로 올해 조력제 감독이 새 사령탑을 맡았다. FC목포는 지난 5일 FC중주와의 FA컵 1라운드에서 2-1로 승리하며 2라운드에 진출했다.

임종안 전남유도회장 한국유도원 공로연금 수혜

임종안 전남유도회장(73)이 (재)한국유도원 공로연금 수혜자로 선정돼 연금증서와 공로패를 받았다.

27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대한유도회와 한국유도원은 최근 대한민국 유도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유도인들의 공적을 널리 알리고 후배 유도인들의 귀감으로 삼고자 14명의 '유도인 공로연금 수혜 대상자'를 선정,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유도인 공로연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임종안 회장은 '대한유도 활성화'를 위해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호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수혜대상자로 선정됐다.

용인대학교 유도학과를 졸업한 임 회장은 승주낙안중, 순천삼산중, 순천공고에서 유도부를 창단해 우수한 유도선수를 육성 발굴, 전남 유도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 2002년부터 브라질 세계 유도선수권대회 감독으로 출전하는 등 5개 국제유도선수권대회 선수단 감독 및 단장으로 선임돼 국위

출했다. K리그3에서도 양주시민축구단과 양평FC에게 이기는 등 최근 3연승을 기록 중이다.

이장관 전남 감독은 “전남은 FA컵에서 4회나 우승한 강팀이다. 이번 FA컵 2라운드를 통해 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 하나원큐 FA컵 2라운드 전남과 목포와의 경기는 유튜브 KFATV_LIVE에서 생중계된다. /조혜원 기자



임종안

선양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12월에 체육훈장백마장을 수여 받은 이후 유도 지도자 생활을 마감했다. 제자로는 김양호 순천시청 유도감독(유도7단)의 1,000여 명의 유도 유단을 배출했으며 1999년 순천시유도회장을 시작으로 2016년 7월 전남유도회장에 취임해 실업팀 창단과 유도스포츠클럽을 창단하는 등 전남유도의 활성화에 힘썼다.

임종안 회장은 “평생 유도인으로 살아오면서, 공로연금 수혜자로 선정돼 매우 큰 영광이다”라며 “전남유도를 위해 힘써주신 노관규 순천시장님과 전남유도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여주시청 김은미, 인천하프마라톤대회 우승

여자부 1시간14분57초

여주시청 김은미(31)가 2023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 정상에 올랐다.

김은미는 지난 26일 인천 문학경기장을 출발해 캠퍼스타운역, 송도국제대로, 동막역 사거리를 돌아 인천문학경기장으로 돌아오는 여자부 21.095km 하프코스를 1시간14분57초에 달려 1시간18분01초에 완주한 임경희(삼척시청)를 제치고 우승했다. 여자부는 남자부와 달리 국내 선수만 출

전했다. 여주시청 심규철 코치는 여자부 지도자상을 받았다.

남자부에서는 조민혁(건국대)이 1시간06분13초를 기록, 1시간06분48초에 완주한 한승현(경기도청)을 제치고 우승했다. 조민혁의 남자부 국제·국내 통합 순위는 6위였다.

남자 국제부에서는 دن카렘 아예인(에티오피아)이 1시간01분17초의 대회 신기록(종전 1시간02분12초)을 세우며 1위를 차지했다. /최진화 기자